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허 승 목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회주의사상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내세운 첫 시기부터 사상사업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사회주의교양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 사상문화기관들, 근로단체조직들, 교육기관들이 다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77페이지)

우리의 사상사업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대중속에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사상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사상문화수단들이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사상문화수단들이 사회주의사상전선에서 자기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이 명실공히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우선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였다.

사실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오히려 사상사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었다.

이 시기 문학예술부문에 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은 《초계급적인 문학예술》,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을 고창하면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생명선인 당성을 거부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로부터 주체54(1965)년 3월 3일 고전적으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령도를 실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문학예술이 당의 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에 따라 문학예술사업을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진행해나가는 사업체계가 수립되었으며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과 4.15문학창작단 등 새로운 예술단과 창작단들이 조직되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학예술부문의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고 모든 문학예술창조사업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하는 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주체70(1981)년 3월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 조건에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당의 의도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4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에서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시와 소설, 영화와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냈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창작된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동지애의 노래》들은 우리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으로 불리워졌으며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 그리고 유화 《1994년 7월의 만수대언덕》과 예술영화 《나의 아버지》 등은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출판보도물이 당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

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5월 7일 역사적인 로작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예리하고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출판보도활동을 철저히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진행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도서를 비롯한 모든 출판보도물들의 활동을 매 시기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이 옹결 결합되고 특색있고 통속적으로 만들어져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한편 신문, 잡지들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의 리용과 배포가 개선되고 온 나라의 텔레비존화가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출판물과 방송, 통신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과 사회주의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되였다.

우리 당은 특히 1990년대초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환경에 맞게 출판보도부문을 철저히 장악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이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나면 반혁명의 도구로 리용되게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배신자들과 반동들이 사상문화수단들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는데 리용한것은 이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당은 력사의 이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사상전선에서 자기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총대중시와 함께 붓대중시로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서는 선군 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였다.

정론 《심장에 불을 달라 혁명군가여!》를 비롯한 무계있고 깊이있는 글들이 많이 나감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은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령도만을 따르는 혁명적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며 우리 당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다음으로 국가기관, 근로단체, 교육기관들이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사상사업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를 비롯한 모든 기관

과 단체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우선 국가기관들이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지도관리하는것은 인민들이 실천을 통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체득하고 사회주의생활에 습관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침습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더우기 국가기관들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가 침투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면 사회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국가기관들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관리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인민들이 법규범과 관리질서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통제하는 한편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가기관들이 단순히 주권적기능이나 행정적관리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양자가 되어 사상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근로단체들이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은 사회성원들을 계급별, 계층별로 망라하는 정치조직으로서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기본임무로 하는 사상교양단체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이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지 못하여 반혁명과의 대결에서 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지 못한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옹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청년교양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청년동맹이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보살펴주시였다.

주체64(1975)년 5월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당시)에게 사로청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9(1990)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우환거리로 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을 떠메고나가는 역군으로, 자랑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해주시고 청년들에게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시였다.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사상과 사회주의위업을 앞장에서 지키고 빛내여나가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청년들은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중요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사상적으로,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단련되었으며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또한 교육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모두가 다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어있는 것만큼 새 세대들을 교양육성하는데서 교육기관들의 임무가 매우 크다. 사회주의교육은 순수 지식과 기술만을 배워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기관들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새 세대들에게 선진과학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 교육기간에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선 역군들로 키워내면서 사상사업의 중요한 몫을 맡아수행하는 사상교양기지로 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다음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정치사업은 모든 사업의 첫공정이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정치사업은 당일군들과 사상사업부문 일군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일군들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일군들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혁명임무로, 혁명과업수행의 첫공정으로 삼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상일군이건 조직일군이건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군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는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사상사업도 하고 조직사업도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후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될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사상사업을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가는 한편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하여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군중을 교양하는 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자기의 본분으

로, 의무로 여기고 일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평안남도안의 탄광들에 내려간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갱막장안에 배낭을 벗어놓고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리하여 도안의 탄광들에서는 주체86(1997)년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해에 비하여 훨씬 더많은 석탄을 캐내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사상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당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사회주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굳게 결속되고 우리 인민은 적들과의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져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어 우리 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강조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하시면서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며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 고있는 오늘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사상사업, 정치사업